

致 辞

科學技術人은 國民科學化의 尖兵

國務總理 金 鍾 泌



親愛하는 全國의 科學技術人 여러분 本人은 여섯번께 맞는 「科學의 날」에 즈음하여, 여러분이 오늘날 이 나라의 發展을 為해 치니고 있는 바 使命과 役割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보면서, 科學技術의 劃期的인 振興을 은 國民과 더불어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維新憲法에는 「國民經濟의 發展과 이를 為한 科學technology은 暢達·振興되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經濟開發을 通한 國力培養과 近代化의 促進을 아울러 이룩하기 위해 科學technology을 集中的으로 暢達·振興시켜야 되겠다는 國家의in 決意가 여기에 闡明되어 있는 것입니다.

特히 朴正熙大統領閣下께서는 機會있을 때마다 科學technology의 重要性을 強調해 오셨으며, 維新 第一次年度인 今年 年頭에는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을 提唱하셨고, 全州에서 열린 教育者大會에서는 또 그 運動의 方向을 昭詳히 提示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維新課業의 第一段階 目標로서 오는 80年代初에 百億弗 輸出과 1人當 國民所得 1千弗 達成을 設定하였습니다.

그 目標의 達成을 위해 政府는 重化學工業을 主軸으로 한, 先進 國際水準에 벼금하는 工業化와, 農漁村의 알찬 開發을 온갖 힘을 기울여 繼續 推進해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工業化와 農漁村開發의 窮局의in 目的은 自主의으로 平和를 維持하고 自立으로써 繁榮을 누려나갈 수 있는 底力を 갖춘 現代國家의 建設에 있는 것인만큼, 國民모두가 이에 參與하는 길은 男女老少 할 것 있어 思考하는 方式과 生活習性을 科學化하여 創造的이며 生產의이고 進取의in 氣風을 振作하는 한편 모두가 技術을 배우고 익혀 온 國民이 1人1技를 품에 지니도록 하는데에 있다고 本人은 確信합니다.

따라서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은 앞으로 全國坊坊曲曲에서 強力히 展開되어야 할 것이며, 그림으로써 우리 生活속에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非合理的이며 非生產의in 모든 要素들이 拂拭되어 國民모두가 公私間의 生活氣風이 一新되어 生產·能率·勤勉·合理·努力이라는 信條가 우리 社會를 支配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勿論 「全國民의 科學化」가 한 해나 두해 사이에 이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國家 民族의 永遠하고도 굳건한 前進을 위해서는 國民모두가 科學하는 마음으로 精進해야 하겠으며 그 精神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만 되겠기 때문에, 우리 國民은 最短時日안에 누구나가 「科學하는 國民」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

이 時點에서, 여러분이 두 어깨에 걸친 使命과 責任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自明합니다.

여러분은 前보다도 더 奮發하여 經濟開發의 第一線에서 貢獻해 주셔야 하겠고, 同時に 우리 나라 科學technology의 水準向上을 위해서 基礎의in 研究에도 如前히 精勵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여러분은, 「全國民의 科學化」를 위한 尖兵이요 推進力으로서의 役割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先導아래 온 國民은 科學하는 마음과 技術을 尊重하는 現代의in 우리 나라의 建設을 向해 精力을 쏟아나가야 합니다.

앞날의 世界에서 남부럽지 않게, 그리고 人類를 위해 남보다 뛰어난 貢獻을 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國民이란 科學technology面에서 앞선 國民일 것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입니다.

「全國民의 科學化」가 이룩되는 날, 우리는 우리 祖國의 近代化를 이룩하였다고 自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繁榮을 詠歌하면서 더 나아가 人類를 위해 寄與한다는 우리 民族의 大乘의in 念願의 實現을 向해 前進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本人은 여러분이 우선 「國民을 위한 科學」, 「國民에 의한 技術」을 當場의 行動綱領으로 삼으실 것을 당부드리며, 急激하게 그 幅이 넓어질 우리의 開發과 建設과 生產을 뒷바침하고 勘當해 나가기 위해 科學technology의 自立化 達成에 또한 曜夜不眠의 奮鬥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그 동안의 勞苦에 感謝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成功과 貢獻을 贉합니다.
感謝합니다.